

## 어휘의미 관계와 어휘적 응집성\*

임 채 훈  
(승실대학교)

### <Abstract>

**Yim Chae-Hun. 2013. Lexical semantic relation and lexical cohesion.** *Korean Semantics, 40*. This paper deals with how words that have semantic relations function as 'cohesion'. That is, the lexical semantic relations not only simply represent the semantic relations between words in lexicon, but also act as the mechanism of formation of sentences or text.

Unlike 'demonstrative pronoun', words that have semantic relations have characteristic, inherent functions in regard to anaphora. A hyperonym or a synonym opens up another possibility, that of introducing an implicative element into the meaning, which is absent in the case of the pronoun. Also, 'demonstrative pronoun' generally has the restrictions of distance between the antecedent and anaphora, whereas a hyperonym or a synonym has a very little the restrictions of it.

핵심어: 어휘의미관계(lexical semantic relation), 유의관계(synonymy), 상하관계(superordinate/hyponymy), 응집성(cohesion), 응결성(coherence), 지시 대명사(demonstrative pronoun), 지시관형사(demonstrative prenoun)

---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332-2010-1-A00079).

## 1. 문제 제기

이 논문은 어휘 간 고유한 내적 체계로 알려진 어휘의미 관계가 단순히 어휘부 내의 지식이 아니라 문장이나 텍스트를 구성하는 데 활용되는 주요한 지식이라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미관계 어휘들이 문장과 텍스트 응집성(cohesion) 구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응결성(coherence) 장치로서의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려고 한다. 실제로 다음 예문을 보면,

- (1) ㄱ. 돈은 화폐를 담당하고 있는 조폐공사에서 생산해 한국은행을 거쳐 발행, 유통, 환수 과정을 거쳐 폐기됩니다.
- ㄴ. 돈은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조폐공사에서 생산해 한국은행을 거쳐 발행, 유통, 환수 과정을 거쳐 폐기됩니다.

‘돈’과 후행하는 ‘화폐’는 유의관계 어휘이다. 그런데 (1ㄱ)의 경우, 이들은 단순히 어휘 내적으로만 유의어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후행하는 ‘화폐’는 앞서 실현된 ‘돈’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 것이다. 이와 같이 유의관계 어휘는 대명사와 같이 동일 지시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실제로 (1ㄴ)에서와 같이, 유의관계 어휘 대신 일반적인 조음의 문법 요소인 대명사 ‘그것’으로 대체하여도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그런데 의미관계 어휘들이 이와 같이 단순히 대명사를 대신하여 쓰이는 것만은 아니다.

- (2) ㄱ. 기술자에게 보고를 받은 지배인은 걱정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지배인의 새 근심은 엄청난 예산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sup>1)</sup>
- ㄴ. 기술자에게 보고를 받은 지배인은 걱정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지배인의 새 \*그것은 엄청난 예산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

1) 용례의 실제성을 위해 필자가 예문을 만드는 것을 되도록 지양하고 신문기사 용례를 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2)의 용례 출처는 국민일보 2007. 11. 21. (<http://missionlife.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 &gCode=all&arcid=0920726703&cp=nv>)

(2ㄱ)에서 ‘걱정’과 후행하는 문장의 ‘근심’은 유의관계 어휘이다. 그런데 이 역시 (1)과 같이 후행하는 ‘근심’은 앞서 실현된 ‘걱정’과 같은 것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된 것이다. 그런데 (2ㄴ)에서 보면 ‘근심’ 대신에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이를 통해 의미관계 어휘들이 대명사와 같이 동일 지시를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조용’의 의미기능을 한다고 알려진 대명사와 그 기능이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미관계 어휘들이 동일 지시를 통해 응집성을 높이는 데 사용된다는 점에서 대명사와 같은 것이 있지만 반대로 그것과는 구별되는 고유한 의미기능이 무엇인지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대로 의미관계 어휘들이 항상 대명사와 대체되어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ㄱ. 분당에 거주하는 박지애(23) 씨는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편입하게 되면서 걱정이 하나 생겼다. 그것은 통학거리가 멀어지면서 늘어나게 된 등하교 시간이었다.<sup>2)</sup>

ㄴ. 분당에 거주하는 박지애(23) 씨는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편입하게 되면서 걱정이 하나 생겼다. ?근심은 통학거리가 멀어지면서 늘어나게 된 등하교 시간이었다.

(3ㄴ)의 경우에도 (2ㄱ)의 경우와 같이 ‘걱정’과 ‘근심’은 유의관계 어휘이므로 후행하는 문장에서 동일한 것을 나타내는 ‘근심’의 사용이 가능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3ㄱ)과 같이 대명사 ‘그것’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모든 의미관계 어휘들이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대명사와 바꿔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조건과 환경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예에서 보았던 것처럼 의미관계 어휘들이 텍스트 응집성을 위한 장치로서 사용될 수 있다고 보고 이들이 하는 응집성 기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일반적으로 ‘조용’의 의미기능을 한

2) 한국경제 2011. 10. 20 ([http://bntnews.hankyung.com/apps/news?popup=0&nid=05&c1=05&c2=05&c3=00&nkey=201110201942413&mode=sub\\_view](http://bntnews.hankyung.com/apps/news?popup=0&nid=05&c1=05&c2=05&c3=00&nkey=201110201942413&mode=sub_view))

다고 알려진 ‘대명사’<sup>3)</sup>와는 어떻게 구별되는지, 의미관계 어휘들이 동일 지시로서 응집성의 의미기능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나 환경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논문의 대략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의미관계 어휘가 응집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를 밝힌 선행 연구로서 Halliday & Hasan(1976)의 어휘적 응집성(lexical cohesion)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3장에서는 상하관계 어휘들이 어떻게 동일 지시를 통한 응집성의 의미기능을 하는지 살필 것이다. 4장은 유의관계 어휘를 중심으로 동일 지시의 응집성 기능이 어떻게 이들 의미관계 어휘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 살필 것이다.<sup>4)</sup>

## 2. 어휘적 응집성

Halliday & Hasan(1976)에서는 텍스트와 텍스트가 아닌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보고 이를 구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응집성(cohesion)’이라고 보았다.

(4) Wash and core six cooking apples. Put them into a fireproof dish.

(4)의 두 번째 문장에서 ‘them’은 첫 번째 문장의 ‘six cooking apples’를 지시, 혹은 조응한다. ‘them’의 이러한 조응적 기능은 두 문장에 응집성을 부여하게 된다. 그 결과 우리는 두 문장을 하나의 전체로서, 함께 하나의 텍스트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

Halliday & Hasan(1976)에서는 이러한 응집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

---

3) ‘조응’의 의미 기능은 ‘대명사’뿐만 아니라 대용언, 접속 부사 등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나 논의의 편의를 위해 현재의 논의는 ‘대명사’와의 비교로 한정하기로 한다.

4) ‘조응’의 기능은 다양한 어휘의미 관계에서 찾을 수 있으나 현재의 논의는 어떤 어휘의미 관계에 ‘조응’의 의미기능이 있는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관계 어휘가 어떤 ‘조응’의 기능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므로 편의상 두 가지 어휘의미 관계만을 살핀다.

지를 살피면서 지시(reference), 대체(substitution), 생략(ellipsis), 접속(conjunction)의 네 가지 문법적 응집성 외에도 어휘적 응집성을 필수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휘적 응집성은 어휘 선택에 의해 얻게 되는 응집적 효과이다. 그리고 이러한 어휘적 응집성은 ‘반복(REITERATION)’이라는 형식으로 실현된다고 주장하였다. ‘반복’의 유형은 양 극단의 한쪽에 동일 어휘의 반복이, 반대쪽 끝에는 해당 어휘를 지시하는 ‘일반 어휘(general word)’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유의어(synonym), 유사 유의어(near-synonym), 상위어(superordinate) 등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 (5) I turned to the ascent of the peak. [ㄱ. The ascent / ㄴ. The climb / ㄷ. The task / ㄹ. The thing / ㅁ. It] is perfectly easy.<sup>5)</sup>

(5)의 첫 문장에서 ‘ascent’는 두 번째 문장에서 각각 (5ㄱ)의 동일 어휘 반복, (5ㄴ)의 유의어, (5ㄷ)의 상위어, (5ㄹ)의 일반 명사(general word), (5ㅁ)의 개별 지시 항목(personal reference item), 즉 대명사에 ‘조응’할 수 있다.

Halliday & Hasan(1976)의 이와 같은 연구 내용은 그간 문법적인 측면에서만 다루었던 ‘조응’의 문제를 어휘적인 영역으로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를 통해 향후 많은 연구에서 텍스트 응집성의 문제를 문법적인 측면이 아닌, 어휘적인 측면에서도 다루게 되었다(Ferstl and von Cramon, 2001; Hellman, 1995; Hoey, 1991; Sanders and Pander Maat, 2006).

그러나 Halliday & Hasan(1976)을 비롯하여 많은 연구가 이러한 어휘적 응집성이 현상적으로 나타난다는 것, 더 세부적으로는 텍스트 장르에 따라 어휘적 응집성이 어떻게 달리 나타나게 되는지<sup>6)</sup>, 어휘적 응집성의 빈도가 읽기 이해 능력과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sup>7)</sup>에 대해서만 살펴보았을 뿐 정작 어휘적 응집성의 각 유형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연구되지 못한 면이

5) Halliday & Hasan(1976:279) [6:6]의 예 재인용.

6) 예를 들어 전문 과학 관련 글에서 어휘적 응집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Jordan(1986), Myers(1991) 등의 연구가 있으며, 대화에 나타난 어휘적 응집성에 대해서는 McCarthy(1988)의 연구가 있다.

7) Beigman Klebanov & Shamir(2006)에서는 어휘적 응집성이 많이 존재하는 텍스트일수록 읽기 이해가 어려운 고급의 텍스트라고 주장하였다.

있었다. 더불어 이러한 어휘적 응집성이 대명사로 대표되는 ‘조응’과는 어떻게 구별되는지, 구별이 된다면 이들 의미관계 어휘를 통한 어휘적 응집성 기제가 갖는 고유한 의미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천착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

이 연구는 이렇게 선행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어휘의미 관계에 따른 응집성이 무엇인지, 이들 어휘의미 관계에 따른 응집성 효과가 대명사를 사용한 문법적인 ‘조응’과는 어떻게 구별되는지 우리말 텍스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3. 상하 어휘관계와 응집성의 실현

단어의 정의가 일반적으로 변별적 특성인 ‘중차’와 ‘유개념’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을 때 피정의항은 하위어, 유개념인 정의항은 상위어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정의항 = 중차+정의항’과 같은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중차’를 지시관형사로 대체한다면 ‘지시관형사+상위어’는 하위어와 동일한 것을 지시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그 꽃이 장미다.”와 같이 ‘지시관형사+상위어’를 통해 지정 구문 구성이 가능하다.

- (6) 장미의 역사는 깊다. 심지어 2000년 전에도 존재했다. 장미/이 꽃/이것은 수많은 세대에 걸쳐 여러 문명에서 매력적인 존재였다. 그래서 장미/이 꽃/이것은 많은 이에게 특별한 상징이다. 전 세계인들이 장미/이 꽃/이것에 여전히 매료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나.<sup>8)</sup>

(6)의 예는 ‘장미’라는 선행 요소가 ‘동일 어휘’, ‘지시관형사+상위어’, ‘대명사’를 통해 동일 지시 될 수 있다는 현상을 보여준다. 이처럼 상하 어휘관계는 동일 지시를 통한 응집성 유지의 의미기능으로 폭넓게 쓰이는 어휘의미 관계이다.<sup>9)</sup>

8) 중앙일보 2012. 11. 16.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904109&cloc=olink|article|default](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904109&cloc=olink|article|default))

9) 그런데 상위어는 계층적 관계로서 그 관계가 이항적인 것이 아니라 상위어의 상위어가 더

상하관계 어휘를 동일 지시를 통한 응집성 기제로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할 점 중의 하나는 두 어휘가 등치가 아니므로 ‘중차’ 혹은 한정적인 대상의 지시를 위해 ‘지시관형사’를 반드시 써야 한다는 것이다.

(7) ㄱ. 과거엔 마을에 하늘다람쥐가 너무 많아, \*동물/그 동물이 천연기념물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살았다.<sup>10)</sup>

ㄴ. 5월 꽃의 여왕은 단연 장미다. 너무도 화려한 \*꽃/이 꽃은, 꽃과 식물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현대의 도시인들에게도 그 존재를 확실히 각인시키며, 모든 대중가요의 꽃들을 평정해 버렸다.<sup>11)</sup>

(7)의 경우 지시관형사를 사용치 않고 상위어인 ‘동물’, ‘꽃’만 쓰면 비문이 된다. 후에 기술하겠지만 유의관계 어휘가 한정적인 관형절이나 해당 어휘만을 가지고 동일 지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반면, 상하관계 어휘의 경우에는 상위어 단독으로나 개체 특정적이지 않은 관형절 수식만으로는 안 되고 지시관형사가 결합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sup>12)</sup> (7ㄴ)의 경우, ‘너무도 화려한’이라는 관형절로 한정적인 지시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이 관형절이 ‘장미’라는 특정한 꽃으로 한정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므로 지시관형사 없이는 선행하는 ‘장미’와 동일 지시할 수 없다. 상하관계 어휘에는 의미적인 상관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동일한 의의를 가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해당 어휘만

---

존재할 수 있으므로 고려할 부분이 있다. (7)의 경우도 엄밀한 의미에서 ‘하늘다람쥐’의 바로 위, 즉 직접적 상위어는 ‘다람쥐’가 될 것이며 ‘동물’ 외에도 그 사이에 생물학적으로 많은 간접적 상위어가 존재할 수 있다. Halliday & Hasan(1976)에서 어휘적인 조응과 문법적인 조응의 경계가 모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할 것도 이와 같은 현상 때문이다.

10) 오마이뉴스 2012. 3. 2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95327](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95327))

11) 중앙 Sunday 215호 (<http://sunday.joins.com/article/view.asp?aid=21422>)

12) 익명의 심사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시관형사 없이 한정적인 관형절과 상위어의 결합으로도 동일 지시가 가능할 수 있다.

(1) 철이는 상암동에 의자를 두고 집을 나왔다. 10년이나 앉아서 정이 들 만큼 든 가구를 두고 이사를 했던 것이다.

(1)에서 선행하는 ‘의자’와 ‘(철이에게) 정이 들 만큼 든 가구’가 지시하는 바는 동일하며 이를 통해 응집성이 생길 수 있다. 즉 한정적인 관형절이 위에서 ‘너무도 화려한’과 달리 단일 개체로 한정할 수 있는, 즉 해당 기술만으로도 특정한 개체를 지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한정적 관형절+상위어’ 결합으로도 동일 지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으로는 ‘지시’의 기능을 추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시관형사와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지시관형사+상위어’를 통해 동일 지시의 의미기능을 갖는 경우가 갖는 고유한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 상위어는 하위어의 정의항으로 사용되는 만큼 그 정의적 특성으로 인해 하위어가 지시하는 특정 개체(token)를 나타내기보다는 종, 혹은 유형(type) 전체를 지시하는 데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 (7)의 경우도 ‘하늘다람쥐’, ‘장미’가 특정한 개체를 지시하기보다는 종 전체를 의미하고 있으며 후행하는 ‘그 동물’, ‘이 꽃’ 역시 종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총칭(generic term)으로 사용되는 것이 더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8) 다람쥐는 나무를 잘 타는 습성이 있는데, 그것은 그 동물/\*그 다람쥐의 먹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8)은 ‘지시관형사+상위어’와 ‘지시관형사+동일 어휘 반복’이 동일 지시를 위해 사용된 것을 비교한 것이다. (8)의 경우 ‘지시관형사+상위어’는 자연스러운 반면, ‘지시관형사+동일 어휘 반복’은 자연스럽지 않다. 이러한 현상적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앞서 밝힌 바대로 상하어휘 관계에 의해 등치가 성립하는 것은 종 전체에 대한 것이므로 ‘지시관형사+상위어’를 통해 지시하는 바는 개체(token)보다는 유형(type)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8)의 경우는 ‘다람쥐’ 종 전체에 대한 총칭적 기술이므로 ‘그 동물’과 같이 상위어를 통해 동일 지시하는 것은 자연스러우나 ‘지시관형사+동일 어휘 반복’의 경우는 대상에 대한 한정적 기술, 즉 개체(token)를 서술하는 특성을 갖게 되므로 제약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시관형사+상위어’가 항상 총칭적으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한정적인 개체를 지시하는 경우에도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다. 이것이 ‘지시관형사+상위어’가 동일 지시의 의미 기능으로 쓰일 때 갖는 두 번째 고유한 특징이다. 상위어는 하위어가 가지지 않는, 그것 자체의 고유한 의미가 있으므로 단순한 동일 지시를 넘어 추가로 ‘함축’ 의미를 가질 수 있다.

- (9) 가: 어제 본 우리 고양이 어땀어?  
 나: 그 고양이/그 동물 너 속 좀 썩일 것 같더라.
- (10) 가: 어제 본 우리 고양이 어땀어?  
 나: 그 고양이/?그 동물 정말 예쁘더라.

(9)의 경우 ‘나’의 발화는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동물’로 동일 지시를 한 경우, ‘그 고양이’라고 한 경우와 달리 ‘그 고양이’에 대한 ‘부정적인 어감’이 실리는 것으로 보인다. 즉, ‘동물’이 갖는 ‘이성적이지 못하고 본능에 치우쳐 행동한다’는 함축이 추가로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가 타당한 것은 (9)와 달리 긍정적인 느낌을 나타내는 (10)의 ‘나’ 발화에서 ‘그 동물’로 발화한 경우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J. Sinclair는 미발표 논문에서 이전 화자의 어휘를 반복할 경우는 그의 관점에 동의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반대로 유의어나 다른 환언적 표현 등을 통해 표현할 경우에는 ‘반대’의 입장을 표시한다고 주장하였다.<sup>13)</sup> ‘지시관형사+상위어’가 언제나 부정적인 느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적어도 상위어가 갖는 고유한 의미가 하위어로 표현할 때와는 다르게 함축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 4. 유의 어휘관계와 응집성의 실현

유의관계<sup>14)</sup> 어휘는 의미의 유사성으로 인해 상호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동일 지시의 특성은 응집성을 발생하게 하는 의미적 토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면,

- (11) 국가에서는 이렇게 좋은 인력을 저렴한 인건비로 활용하기 위해 직능 단체를

13) Halliday & Hasan (1976:292)에서 재인용.

14) ‘유의관계’와 ‘동의관계’라는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의미가 동일한 경우는 없고 상호 대체가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유의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설립해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나라에서는 저렴한 인건비로 고급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좋고 퇴직한 시니어들은 일자리가 생겨 보람을 갖게 되는 것이니 좋은 것이다.<sup>15)</sup>

(11)에서 ‘국가’는 ‘대한민국’을 지시하고 있는데 후행하는 ‘나라’ 역시 ‘대한민국’을 동일 지시함으로써 응집성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경우에 ‘지시 대명사’로의 대체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어는 ‘지시 대명사’의 조응이 모든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쓰임이 한정되어 있다. ‘국가’와 같은 경우는 이를 대신할 적절한 지시 대명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어에서는 모든 명사가 ‘지시 대명사’로 대체되어 조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시 대명사인 ‘그것’은 사물, ‘그들’은 선행하는 사람을 지시하게 되는데 ‘나라’와 같이 ‘사물’이나 ‘사람’으로 범주화하기 어려운 명사가 있을 경우에는 이들 지시 대명사로 조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명사를 사용하기보다는 동일 어휘를 반복하여 동일 지시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렇게 동일 어휘로 동일 지시를 하는 경우 외에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유의관계 어휘이다.

아래의 경우도 대명사로의 대체가 가능하지 않은, 유의관계 어휘로만 대체가 가능한 예이다.

(12) ㄱ. 집 값 안정을 위해 세금 감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다는 이야기이다.

ㄴ. 집 값 안정을 위해 세금 감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그것이 많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유의관계 어휘를 통해 동일 지시를 하는 경우와 대명사가 조응을 하는 경우가 서로 구별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조응 간의 ‘거리’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시 대명사는 ‘지시’의 기능적 측면이 분명하게 부각되는 반면 고유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그

15) 중도일보 [사회] 2013.02.13

리므로 조용할 수 있는 선행소의 후보가 많을수록, 조용하는 선행소와 거리가 길면 길수록 조용하는 선행소를 찾는 데 해석자의 부담이 생긴다. 반면 유의관계 어휘는 그것 자체가 ‘지시’의 기능을 갖지 않으므로 해당 어휘만으로는 ‘지시’의 의미기능을 인지하기 쉽지 않으나 고유의 의의를 가진다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지시’의 기능만 잘 파악된다면 그와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는 선행소를 찾는 것은 상대적으로 훨씬 쉽다. 동일 지시하는 선행소가 그만큼 멀리 있으면 조용할 수 있는 후보가 많아지므로 조용하는 것을 찾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는 동일 지시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동일 어휘나 유의관계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12)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 (14)를 조용의 거리가 가깝도록 바꿀 경우 대명사로의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견해가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집 값 안정을 위해 세금 감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 의견/그 견해/그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말한다.

앞서 ‘문제제기’에서 나온 (2)의 예도 대명사의 대체가 가능하지 않은, 유의어로서 동일 지시가 가능한 예이다.

- (2) ㄱ. 기술자에게 보고를 받은 지배인은 걱정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지배인의 새 근심은 엄청난 예산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ㄴ. 기술자에게 보고를 받은 지배인은 걱정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지배인의 새 \*그것은 엄청난 예산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의 경우 유의관계 어휘로는 동일 지시가 가능하나 ‘지시 대명사’로는 대체가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지시 대명사는 관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관형사의 수식에 있어 유의관계 어휘는 지시 대명사와는 달리 제약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2)와 같은 경우에는 동일 어휘나 유의관계 어휘를 사용하여 동일 지시를 하게 된다.

반대로 지시 대명사로 조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유의관계 어휘로는 동일 지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13) ㄱ.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아직도 그것을 못 갚고 있다.
- ㄴ.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아직도 \*화폐/그 화폐를 못 갚고 있다.
- (※ 참고 (1) ㄱ. 돈은 화폐를 담당하고 있는 조폐공사에서 생산해 한국은행을 거쳐 발행, 유통, 환수 과정을 거쳐 폐기됩니다.)

(13ㄱ)의 경우 선행하는 ‘돈’을 후행하는 ‘그것’이 조응할 수 있다. 그러나 유의어휘 관계가 있는 ‘화폐’의 경우 앞서 조응이 가능했던 (1ㄱ)과는 달리 (13ㄴ)에서는 불가능하다. 이것은 ‘돈’이 “상품 교환과 재산 축적을 위한 물건”이라는 측면에서는 유의관계가 성립하나 ‘재산’이나 ‘비용’ 등과 같은 의미로는 유의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대체하여 동일 지시의 기능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유의관계 어휘는 대당 어휘가 가지지 않는, 고유한 의미와 결합관계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이것이 상호 대체할 수 없게 하는 제약이 되면 동일 지시의 기능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앞서 상위어가 조응하여 사용될 때 하위어에는 없는, 상위어의 고유한 의미가 함축으로 추가될 수 있다고 하였다. 유의관계 어휘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즉 유의관계 어휘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미가 추가로 함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 (16) 가: 아까 인사 온다고 했던 남자 왔었어요?
- 나: 그 남자/그 녀석 방금 왔다 갔지.

‘남자’와 ‘녀석’은 유의관계 어휘이다. 그런데 ‘녀석’은 보통 ‘남자’를 낮추어 부르는 말인데, (16)에서 보는 것처럼 ‘남자’가 반복되어 쓰이는 경우와 달리 ‘녀석’을 쓴 경우에는 화자의 부정적인 평가, 낮잡아 보는 어감이 추가로 함축될 수 있다. 즉 대명사를 통해서, 혹은 동일 어휘를 반복의 경우와 달리, 유의관계 어휘가 고유하게 가지는 의의나 함축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함축을 가진 어휘가 조응하여 쓰일 경우 그런 고유의 함축이 추가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 5. 결론

이 논문에서는 어휘 간 고유한 내적 체계로 알려진 어휘의미 관계가 단순히 어휘부 내의 지식이 아니라 문장이나 텍스트를 구성하는 데 활용되는 주요한 지식이라는 것을 보이려고 했다. 이를 위해 의미관계 어휘들이 문장과 텍스트 응집성(cohesion) 구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응결성(coherence) 장치로서의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했다. 어휘의미 관계 별로 동일 지시와 관련하여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논의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조응’의 유형별 기능 차이

동일 지시의 유형 기능적 차이	상하관계 어휘	유의관계 어휘	※ 참고.	
			동일 어휘 반복	대명사
지시관형사 실현	필수적	선택적	선택적	-
추가 함축	있음	있음	없음	없음
동일 지시의 거리 제약	보통	적음	적음	많음

우선 ‘지시관형사’ 실현에 있어 상하관계 어휘는 동일 지시의 기능을 위해 반드시 지시관형사를 실현시켜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대개 ‘지시관형사+상위어’는 총칭적인 기술에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반면 유의관계 어휘는 ‘지시관형사’의 실현이 선택적이다. 즉 총칭적 기술의 경우에는 유의관계 어휘 단독으로 조응이 가능했으나 한정적 기술의 경우에는 ‘동일 어휘 반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시관형사의 실현이 필요하다.

대명사가 ‘지시’의 기능만 있고 그것 자체가 가지는 의의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 상하관계 어휘와 유의관계 어휘의 경우에는 그것 자체가 고유한 의의를 가지므로 추가의 함축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동일 지시의 거리 제약과 관련하여 가장 자유로운 것은 유의관계 어휘이

다. 동일 어휘 반복이 동일 지시의 거리에 대해 자유로운 만큼 동일 지시의 측면이 있는 유의관계 어휘가 그만큼 조응의 거리에 있어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상하관계 어휘는 비교적 자유로우나 조응의 대상으로 하위어가 복수로 상정 가능할 경우에는 제약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문법적인 조응으로서 지시 대명사가 갖는 제약에 비해서는 자유로운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의는 의미관계 어휘가 조응의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밝히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의미관계 어휘, 예를 들어 반의관계 어휘가 가질 수 있는 동일 지시의 기능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했다. 더불어 ‘명사’만을 살펴보고 다른 성분들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했다. 향후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점이다.

## 참고문헌

- 김진해(2006), “코퍼스 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의미의 본질”, 『한국어 의미학』21, 한국어의미학회, pp.75-104.
- 윤평현(2008), 『국어의미론』, 역락.
- 임지룡(1992), 『국어 의미론』, 탑출판사.
- 임채훈(2009), “반의관계와 문장의미 형성 -형용사, 동사 반의관계 어휘의 공기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30, 한국어의미학회, pp.231-256.
- 임채훈(2011), “유의관계 어휘와 문장의미 구성”, 『한국어 의미학』34, 한국어의미학회, pp.349-373.
- 전영철(2011), “총칭성과 양화”, 『한국어 의미학』39, 한국어의미학회, pp.51-76.
- 최경봉(2010), “계열적 의미관계의 특성과 연구 목표-유의 및 반의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49, 한국어학회, pp.65-90.
- Beigman Klebanov, B. & E. Shamir(2006), ‘Reader-based exploration of lexical cohesion’, *Language Resources and Evaluation* 40, pp.109-126.
- Ferstl, E. C. & D.Y. von Cramon(2001) ‘The Role of Coherence and Cohesion in Text Comprehension: An Event-Related FMRI Study’, *Cognitive Brain Research* 11, pp.325-40.
- Hellman, C. (1995), ‘The Notion of Coherence in Discourse’, in G. Rickheit and C. Habel (eds.), *Focus in Coherence in Discourse Processing*, Berlin: Gruyter, pp. 190-202.

- Hoey, M. (1991), *Patterns of Lexis in Text*,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Jordan, Michael P. (1986), 'Co-Associative Lexical Cohesion in Promotional Literature', *Journal of Technical Writing and Communication* 16-1, pp.33-53.
- Morris, J. & G. Hirst(1991), 'Lexical cohesion computed by thesaural relations as an indicator of the structure of text', *Computational Linguistics* 17-1, pp.21-48.
- Halliday, M. A. K. & R. Hasan(1976), *Cohesion In English*. London: Pearson Education Limited.
- Martin, J. R. (1992), *English Text: System and Structure*, Amsterdam / Philadelphia, PA: John Benjamins.
- McCarthy, M. (1988) 'Some Vocabulary Patterns in Conversation', in R. Carter and M. McCarthy (eds.), *Vocabulary and Language Teaching*,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 197-208.
- Myers, Greg(1991), 'Lexical Cohesion and Specialized Knowledge in Science and Popular Science Texts', *Discourse Processes* 14-1, pp.1-26.
- Sanders, T. and Pander Maat, H. (2006), *Cohesion and Coherence: Linguistic Approaches.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cs*, London: Elsevier.
- Stotsky, Sandra(1983), 'Types of Lexical Cohesion in Expository Writing: Implications for Developing the Vocabulary of Academic Discourse',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34-4, pp.430-446.
- Tanskanen, Sanna-Kaisa(2006), *Collaborating towards Coherence: Lexical Cohesion in English Discourse*, Amsterdam: Benjamins.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69  
 숭실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연구관 110호  
 156-743  
 전화 번호: 02) 820-0333  
 전자 우편: linguist@ssu.ac.kr

원고 접수일: 2013년 2월 28일  
 원고 수정일: 2013년 4월 19일  
 게재 확정일: 2013년 4월 22일